

신선식품 지수 15%↑...소비자물가 연중 최고

11월 전년비 1.3% 상승...3개월 연속 1%대

농·축·수산물가 고공행진...가계부담 가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이 가중하고 있다. 전월에 이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았고, 서비스물가도 상승해 체감 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이는 올해 2월(1.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던 10월과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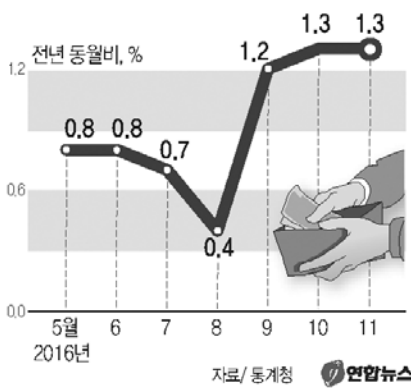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부터 1%대로 올라섰으며 10월에는 1.3%로 상승했다.

특히 11월 서비스물가는 1.8% 오르며 전체 물가를 1.00%포인트(p) 끌어올렸다.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6.4% 떨어졌지만, 전월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전체 물가 기여도는 -0.31%포인트였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류와 도시가스 가격이 전월보다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7.9% 뛰며 전체 물가를 0.57%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9.6% 상승)의 기여도가 그중 절반이 넘는 0.35%포인트에 달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2014년 7월(1.4%) 이후 2년 4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다.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식품 물가가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보다 3.7% 났을 영향이다.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체감물가 상승률도 높아진 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 역시 15.0%포인트나 뛰어 서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가

버거워지고 있는 상태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선 무가 120.7%나 뛰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든 무는 9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2배 넘게 뛰는 급등세를 보였다. 토마토 71.1%, 풋고추 62.4%, 파는 41.6% 올랐다. 배추 가격 상승 여파로 김치 제품 물가도 20.4% 상승했다.

하수도 요금은 10.9% 올랐고 외래진료비도 2.1% 상승했다.

이 외에 외식 소숫값은 11.4%, 공동주택 관리비 3.6% 상승했다. 전세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반면 저유가 여파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는 각각 14.8%, 19.3% 떨어졌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11월 소비자물가가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3.75 (+0.27)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2)

↓ 코스닥 593.85 (-2.26) ↓ 환율 (USD) 1167.60원 (-1.50)



서광주세무서 민원 통합상담창구 개설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개인상담창구 1층 배치

서광주세무서(서장 노대만)는 각종에 흩어져 운영되던 개인상담과 고충민원상담을 1일부터 '통합상담창구'로 새롭게 개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서광주세무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개인상담과 고충민원상담이 1층~3층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찾기가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통합상담창구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과 함께 개인상담창구를 1층으로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사무실을 쉽게 찾아 신고 및 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대만 서장은 "서광주세무서는 민원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무서이고, 또 고령인이 많아 그동안 불편이 컸다"며 "그동안 2층에서 운영되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2017년부터는 1층에 개설하는 등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우수 제품 미얀마 홈쇼핑 판매

광주테크노파크, 강소기업 진출 지원...150만달러 수출 계약

광주테크노파크가 미얀마 TV홈쇼핑 통해 지역 명품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8일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채널CG홀딩사와 지역 중소기업 간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주)다케이가 100만 달러, ㈜인아가 50만 달러 물량을 미얀마 채널CG 홀딩사에 납품, 미얀마 TV홈쇼핑을 통해 수출하는 내용이다.

㈜인아는 이미 40인치와 32인치 TV제품에 대한 초도물량으로 40대에 대한 오더를 수주 받아 선적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번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인아 백희중 대표이사와 광주테크노파크 배정찬 원장은 현지 TV홈쇼핑 녹화방송에 직접 참여, ㈜인아 TV

제품의 차별화된 장점과 신뢰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케이는 이번 수출계약과 함께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100대를 초도물량으로 납품했고 미얀마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다케이의 제습기의 경우 미얀마가 본격적인 우기 시즌에 돌입하는 내년 4월에 미얀마 TV홈쇼핑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수출계약체결이 실제 수출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들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간 수직적, 수평적 수출권 소시업 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략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소외 어린이 초청 전통 문화체험



목포 용해지구 행복주택 450가구 공급

LH, 이달말 입주자 모집 공고...내년 11월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목포 용해 1, 2지구에 전남 지역 첫 행복주택 45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목포 용해 1, 2지구에는 전용면적 21, 23, 26, 36㎡ 4개 평형이 공급된다. 계층별 공급내용은 대학생 60가구, 사

회초년생 210가구, 신혼부부 90가구, 고령자 46가구, 주거급여수급자 44가구다.

월 임대료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80%, 고령자 76%, 주거급여수급자 60%이며, 입주 시기는 오는 2017년 11월이다.

청약일정은 12월 하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순 LH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김대성기자bigkim@

‘대유에이텍’ 노사 상생 최우수 사업장

광주경실련,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3곳 선정

(주)대유에이텍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등 3곳이 노사 상생 우수 사업장에 선정됐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9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올해 노사 상생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경영·노동자 단체, 시의원, 변호사,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린 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사업장 현장 심사를 펼쳤다.

심사 결과 최우수 사업장에 ㈜대유에이텍을, 우수사업장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을 선정했다.

최우수사업장에는 1000만원, 우수사업장에는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현판이 수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